

일곱번째 동영상: 중앙지역총회

1939-1968 감리교 인종차별의 상징이던 중앙지역총회

여는 기도 (인도자)

아래 연합감리교 제자국 웹사이트에 가면 변화를 위한 기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매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praying-for-change-daily-prayers-for-anti-racism>

중앙지역총회 역사

'짐크로우' (흑인 차별정책) 시대에 감리교 감독교회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와 남부 감리교 감독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그리고 개신교 감리교회 (the Methodist Protestant Church)는 교단 합병에 관한 논의를 하고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남부지역 교회들에서 요구한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1939 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조건은 지역과는 상관 없이 인종에 기반하여 지역총회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19 개 흑인 연회들이 하나의 지역총회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회 (the Methodist Church)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가 합병하여 연합감리교회 (the United Methodist Church)가 시작되었던 1968 년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 가면 감리교회 중앙지역총회와 인종차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gcah.org/history/central-jurisdiction>

토의 질문

1. 당신은 중앙지역총회 혹은 미국 감리교회 안에 있었던 인종차별 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당신에게는 익히 알고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실입니까?

2. 감리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감정 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본문

사도행전 10:7-19, 28

7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8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옹바로 보냈다. 9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옹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10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2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13 그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15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18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19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사도행전 10:7-19, 새번역)

28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28, 새번역)

* 사도행전 10 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면 토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상

베드로는 성령감림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인종, 언어, 교리와 상관없이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에게 임하셨고,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도행전 2 장). 이 놀라운 경험 후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유대교 전통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토의 질문

1.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다양한 인종,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받기 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바뀌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10:28 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위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문제, 백인우월주의, 배타주의와 포용주의에 관해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이 동영상은 중앙지역총회가 생기기 전인 1892 년에 시작된 감리교회에 뿌리를 둔 한 미국 흑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감리교회 안에 차별과 편견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에 계속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연합 감리교회 최초 흑인 여성 감독인 Leontine Turpeau Current Kelly 감독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의 질문

1. 여러분은 다수가 지배하는 문화와는 다른 소수의 의견이나 생각, 문화를 가진 그룹에 속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2. 흑인 교인들 중에는 감리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고, 감리교회에 남기로 한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소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감리교회에 남았겠습니까 아니면 교단을 떠났겠습니까?
3.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교단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흑인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4. 미국 감리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감리교회는 차별적인 교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우리 교단의 인종차별적이었던 과거의 역사와 지금도 교회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인종 분열의 현실이, 점차 다양성이 많아지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들:

1. 아래 연합 감리교회 인종과 종교 관계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corr.org/>
2. 흑인 목회자나 평신도를 초대해서 그분들이 연합감리교회에서 겪어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3. 아래 교단 제자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까다롭고 불편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해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courageous-conversations-overview>

마치는 기도

아래 연합감리교 제자국 웹사이트에 가면 변화를 위한 기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매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praying-for-change-daily-prayers-for-anti-racism>

* 이번 교재 제작에 Leontine Kelly 감독의 따님인 Angella Current-Felder 박사가
참여하였습니다.